

# “도전 위해 광주 왔다...광주FC 10승 이상 이끌 것”

## 시즌 개막 앞둔 광주FC 신임주장 김원식

“도전을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10승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올 시즌 광주FC에서는 김원식(사진)이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도전’이 김원식의 2021시즌의 키워드다.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뛰게 됐지만, 아직 김원식에게는 낯선 팀이다. 그는 2월 초 자유계약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이적생’이다.

서울 유스 출신으로 5시즌을 서울에서 보낸 그에게 광주는 낯선 곳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삶 대신 새로운 출발을 결정한 김원식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아내와도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서도 “모든 선수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더 많은 경기에 나서기 위해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의 선택에는 광주의 새 사령탑 김호영 감독도 있다. 지난해 시즌 중반 감독대행으로 서울을 맡았던 김 감독은 주전 경쟁에 밀려나 있던 김원식의 장점을 끌어내며 믿음을 심어줬다.

김원식은 “감독님께서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광주행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서울에서 중앙수비를

이달초 자유계약으로 이적 수비형 미드필더 성장 계기로 강등 1순위 평가에 독기 품었다 광주는 원팀...조직력 살려 승부

많이 봤는데 원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끄집어내고, 잘할 수 있게 살려주셨다. 그런 부분이 잘 맞았다.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이라는 큰 구단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도전이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의 시즌을 앞두고 새 팀에서 주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았다. 고민은 있었지만, 책임감으로 팀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다.

김원식은 “부담도 됐고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회를 주셨다. 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겠다”며 “주장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프로로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한다. 부주장들의 역할

이 크다. 광주에서 몇 년간 해온 부주장들에게 의지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부주장 여봉훈과 이한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빅클럽’ 서울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시민구단 광주. 적으로 지켜본 광주는 ‘원팀’이었다. ‘선수층이 얇다’는 단점을 ‘조직력’이라는 장점으로 바꿔 순위 싸움의 전면에 설 생각이다.

김원식은 “(서울과) 환경이 다르지만, 똑같이 축구 구공 가지고 하는 것이다. 우리 팀의 스퀘드가 두터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서로 아는 것도 많고 더 조직력이 좋을 수 있다. 부상 조심하고 호흡 잘 맞추면 오히려 장점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적으로 광주를 만났을 때 선수 개개인이 아니라 팀으로서 끈끈하게 승부하는 까다로운 팀이었다. 상대가 제어하는 플레이가 인상 깊었다. 그런 콘셉트는 올해도 이어나가면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업그레이드 해 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3-4월이 김원식이 짊어지는 승부처다. 조직력이 다져지기 전에 최대한 승점을 쌓고, 외국인 선수들과 부상 선수들의 복귀 시점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독기에 강렬하게 시즌을 열 계획이다.

김원식은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우리 팀이 10승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장으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년 광주가 강등 1순위라는 평가를 받는데 올해는 유독 표수가 많다고 들었다. 그 이야기 듣고 경각심이 생겼다. 개인은 물론

팀도 독기가 올라왔고 동기부여가 됐다. 광주 팬분들도 동기부여를 위해 더 강하게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강진서 3월 3~6일 3·1절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 마스터즈대회는 코로나로 취소

강진군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제68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사이클 시즌 개막을 알리는 첫 대회로 강진군이 후원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

전국 엘리트 남녀 선수들은 강진종합운동장 앞을 출발해 158km에 이르는 개인 도로경기와 강진 종합운동장 외곽도로에서 실시하는 크리테리움 경기까지 총 세 차례 레이스를 펼친다.

비교적 짧은 1.3km를 23회, 총 30km를 왕복하는 크리테리움 경기는 종목의 특성상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이 50km 이상을 유지해 어떤 다른 경기보

다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진다.

대회 첫째 날과 둘째 날인 3일과 4일은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소방서, 까치내재, 풀치재, 성전면을 거쳐 강진우시장 앞에 끝나는 장거리 코스 경기다.

셋째 날인 5일은 종합운동장에서 소방서, 까치내재, 작천중학교, 흥교관, 군동화방마을을 거쳐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끝나는 단거리 코스다.

마지막 날 열리는 크리테리움 경기는 이전 대회까지는 성전산업단지 외곽도로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강진종합운동장 외곽도로에서 열린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을 비롯해 음성군청, 전북체육고등학교, 삼양사 등 20여 개 팀이 강진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선수단도 속속 강진군에 입성하고 있다.

강진군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24일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통해 각 선수와 임원이 강진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500명이 참가하는 ‘2021 강진투어 마스터즈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신진서 4연승...한국 농심배 우승 1승 남았다

### 오늘 중국 커제와 마지막 승부

신진서(사진) 9단이 농심배에서 4연승을 거두며 한국을 우승 문턱으로 이끌었다.

신진서는 24일 서울 한국기원과 일본 도쿄 일본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라운드 제12국에서 일본의 마지막 주자 이치리키 료 9단에게 135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신진서는 이번 대회에서 파죽의 4연승을 달리며 한국의 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

이긴 선수가 계속 두는 연승전 방식의 농심배에서 한국은 신진서에 이어 박정환 9단이 대기 중이다. 일본은 전원 탈락했고 중국은 마지막 주자인 커제 9단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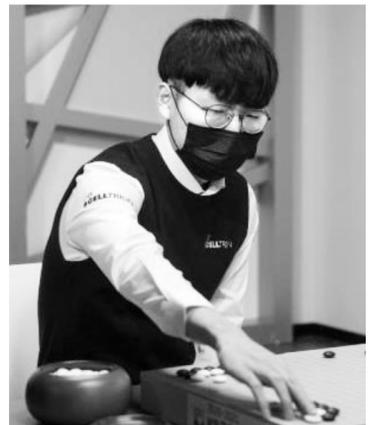
한국바둑 랭킹 1위 신진서와 중국 최강자 커제의 대결은 25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신진서는 커제와의 상대 전적에서 4승 10패로 뒤져 있다.

그러나 마지막 대국인 지난해 12월 중국 갑조리 그에서는 불계승을 거뒀다.

이날 흑을 잡은 신진서는 중반까지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신진서는 상변에서 뻗어 나온 백 대마를 공격하며 일거에 우세를 잡았다.



이치리키는 대마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신진서가 깔끔하게 포획하자 돌을 던졌다.

신진서는 이치리키와 상대 전적에서 3전 전승으로 앞섰다.

농심배에서 4연승을 달린 신진서는 연승 상금 2000만원을 확보했다.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연합뉴스

## 광주장애인체육회 김세정, 세계 실내조정선수권 5위

### 63개국 935명 참가 비대면 개최

### 한국 유일 도쿄패럴림픽도 출전

김세정(44·광주장애인체육회)이 2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진 ‘2021년 세계실내조정선수권대회’(World Rowing Virtual Indoor Championships)에서 5위를 차지했다.

김세정은 이날 경기에서 오픈 예선 및 특별예선을 돌파한 7명의 선수와 맞붙었다. 김세정은 지난 1월 치러진 아시아 대륙예선 PR1 여자 2000m에서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김세정은 현재 아시아 랭킹 1위에 올라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한다.

국제조정연맹(FISA)이 주최하는 이번 세계실내조정선수권대회에는 63개국 935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스위스 본부에서 실시간 중계와 경기를 진행했고 선수들은 각자 시험 장소에서 경기 실황을 웹캠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세정(광주장애인체육회)이 지난 23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진 2021 세계실내조정선수권대회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 경기는 에르고미터(운동량 측정 장치)와 홀레이스 프로그램을 연결해 경기 실황을 웹캠으로 대회본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 상승세 권순우, 싱가포르오픈 테니스 16강에

권순우(81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싱가포르 오픈(총상금 30만 달러) 단식 16강에 올랐다.

권순우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선 콰이엇카우스키(219위·미국)에게 2-1(4-6 6-3 6-4) 역전승을 거뒀다.

22일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끝난 ATP 비엘라 챌린저 2차 대회(총상금 13만2280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한 권순우는 곧바로 싱가포르로 이동, 챌린저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인 투어 대회에 출전했다.

1세트를 먼저 내준 권순우는 2세트 게임스코어 3-3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허용, 위기에 몰렸으

나 침착하게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킨 뒤 내리 2게임을 더 따내 승부를 3세트로 끌고 갔다.

마지막 3세트에서 4-4까지 맞서다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한 권순우는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한 포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하며 2시간 10분 접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권순우는 지난해 US오픈 1회전에서도 콰이엇 카우스키를 상대로 3-1(3-6 7-6(7-4) 6-1 6-2)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권순우의 2회전 상대는 우치야마 야스다가(109위·일본)다. 권순우는 우치야마를 상대로 챌린저 대회에서 두 차례 만나 두 번 모두 2-1 승리를 따냈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복식에는 우치야마와 한 조로 출전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카오스 워킹
2관	카오스 워킹
3관	통과 제리, 워 워드 그랜파
4관	통과 제리
5관	미션 파서블
6관	미션 파서블
9관	소울
7관	씨네카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퍼펙트 캐어, 새해전야
8관	씨네카를 통과 제리, 라스트 레터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극작 상상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